

도교육청 - 부안군, 폐교 활용방안 논의

서거석 교육감, 권익현 군수와 교육협력 '맞손' 새만금 국제학교 · 영어수학체험센터 건립도 논의

도내 지자체와의 교육협력을 위한 서거석 교육감의 현장행보는 계속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과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11일 군청에서 교육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양 기관은 교육 협력 담당 전담부서를 두고 청소년 활동공간 조성 및 글로벌 인재 양성 등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부안 교육의 성장을 위해 두 기관이 힘을 모은 만큼 부안의 미래인재 양성에 큰 시너지를 얻을 것"이라며 "학생 중심 미래 교육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육협력은 지역 사회 발전과 미래를 위한 중요한 시작이며, 그 시작에 우리 교육청과 부안군이 함께 나아가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며 "부안지역의 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거석 교육감과 권익현 군수는 폐교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권 군수는 폐교 활용과 관련해 우리 마을 활용한 베이커리 타운을 조성하겠다고 하며, 의복초등학교를 매각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 국제학교와 영어·수학체험센터 건립에 대해서도 요청했다.

이에 서 교육감은 의복초 매각 건에 대해 "폐교 활용은 먼저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자체 교육기관 설립이고, 다음으로 지자체가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제안하면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새만금 국제학교와 영어·수학체험센터 건립 요청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은성기자 · 부안=김석진기자

전라북도교육청-부안군 교육협력 협약식

2023. 4. 11.(화) 10:30 / 5층 대회의실



전북도교육청과 부안군은 11일 군청에서 교육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초등교육 선도 황학인 다짐 새롭게"

전주교대 동창회 개교 100주년 맞아 기부금 1억 전달

전주교육대학교 동창회(회장 이한홍) 동문 일동이 개교 100주년을 맞아 기부금 1억원을 모금, 대학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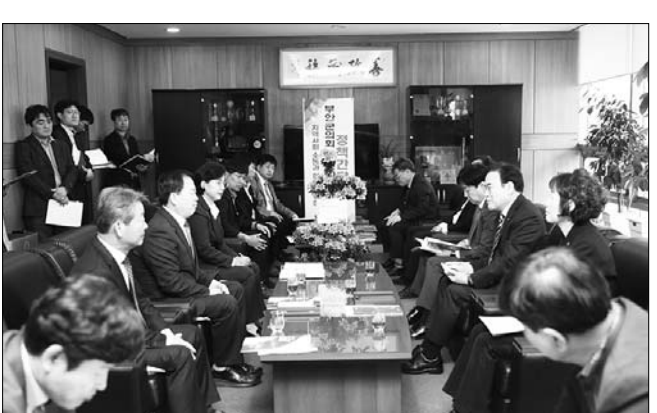
이에 따르면 동창회는 11일 모교 발전과 후학 양성을 위해 심시일반 마음을 모은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

기부금 전달식에는 이한홍 동창회장을 비롯해 문흥근 전 동창회장, 김태수 수석부회장, 김왕규 군산지회장, 이영환 전주부설초 교장 등 전·현직 동문이 함께했으며, 박병준 총장과 서현석 기획처장 등 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한홍 회장은 "동창회에서는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가 동문과 대학 구성원의 자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 지역사회에 헌신하고, 우리나라 초등교육의 초석을 다져온 그간의 노력을 대외에 널리 알리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초등교육을 선도하는 황학인의 다짐을 새롭게 하는 중요한 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전주교육대학교는 1923년 5월 1일 개교해 2만5,000여명의 초등교원을 배출했으며, 우리나라 초등교육을 이끄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장은성기자



서거석 교육감이 11일 부안군의회 의정실에서 군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각 학교에 국악 프로그램 개설 권장 늘봄학교 연계 돌봄교실 연장 검토 중"

서 교육감, 부안군의회 의원들과 교육상생 간담회

서거석 교육감이 11일 부안군의회 의정실에서 군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1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는 폐교 활용과 작은학교 통합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다.

김원철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부안군이 관내 폐교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려 할 때 전북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매각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부안은 관소리외 고교이라며 "부안의 국악과 관소리 분야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방과후 학습과정을 신설해 달라"고 말했다.

이현기 부의장은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잰버리 대회에 많은 학생이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고, 김두례 의원은 부안농초등학교 돌봄교실 확대 운영 방안에

대해 건의했다.

또 박태수 의원은 "교육청이 학교 통합 기준을 10명 미만으로 잡고 있는데,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20명, 또는 30명 되는 학교도 과감히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거석 교육감은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자체적으로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지자체가 주민들을 위한 공공목적 활용사업을 제안할 경우 적극적으로 매각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방과후 학습으로 국악·관소리 신설과 관련해 각 학교에 프로그램 개설을 적극 권장하겠다"며 "특히 돌봄교실 확대에 대해서는 늘봄학교와 연계해 돌봄교실 연장 운영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장은성기자 · 부안=김석진기자

광결정 고분자필름 개발 '결실'

전북대 임석인 박사과정생 TIC 우수고분자연구상 수상 "과학기술 발전 일조 목표"

전북대학교 임석인 박사과정생(나노융합공학과 지도교수 정광운)이 최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3년 한국고분자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TIC 우수고분자연구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이 상은 2018년부터 TIC(세진시아이)에서 출연금을 기탁해 고분자 분야의 진취적인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발표된 고분자과학기술 분야 우수 논문 1편을 선정해 시상한다.

이에 임석인 박사과정생은 미세주름 구조를 도입해 관찰 방향에 관계없이 동일한 색을 반사할 수 있



는 광결정 고분자 필름을 개발했다. 이 연구는 지난해 12월 재료공학 분야의 세계 최상위 국제 학술지 중 하나인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스' 표지논문으로 게재되기도 했다.

광결정 소재는 나노미터(10억분의 1미터) 단위의 일정한 간격을 통해 특정 파장의 빛만 반사시키는데, 기존 광결정 필름은 관찰자의 방향에 따라 구조 간격이 다르게 관찰돼 반사된 빛의 색깔이 달랐다.

연구팀에 따르면 이러한 광결정 필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십 마이크로미터(백만분의 1미터) 크기의 미세한 주름 구조를 갖는 고분자 탄성체 기반을 이용했다. 광결정 페인트를 해당 기관 위에서 진단 코팅 및 광중합의 연속 공정으로 제작해 탄성체 기반의 미세주름 구조를 광결정 필름에 동일하게 전사시켰으며, 결과적으로 관찰방향에 관계없이 동일한 색을 반사하는 광결정 고분자 필름의 제조 원천기술을 확보했다.

이 연구 성과를 최근 한국고분자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포스터로 발표, 포스터 부문 우수논문 발표상을 수상했다.

임석인 박사과정생은 "정광운 지도교수님을 비롯해 함께 연구하는 연구실 동료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좋은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발전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상을 원동력 삼아 고부가 가치의 고분자 재료를 개발하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올 공직복무관리 추진계획 마련

9개 세부과제 추진... 비위·일탈행위 등에 엄정 대응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공직자가각 확립 및 공직사회 전반에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023년 공직복무관리 추진계획을 마련, 모든 소속 기관 및 학교에 안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교육분야 국정과제 및 전북교육청 10대 핵심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시기에 공직자각 해이 등 조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엄정한 공직복무 확립, 구조적·관행적 비위 근절, 일하는 공직

문화 조성 등 9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명절·휴가철·연말연시 등 취약시기 복무관리 점검 강화 △음주운전·횡령·성비위 등 품위 훼손행위 근절 △의외적이고 상습적인 소극행정 엄정 조치 △일하는 공직자 사기진작 등이 있다.

특히,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와 공직자의 비위·일탈 행위 등 중대한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을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반민원신고센터(13개), 부패·공익 신고센터(6개), 언론보도 등을 활용한 공직자각 점검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교육과 연계해 공무원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등의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흥열 감사관은 "공직 청렴도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엄정한 공직자각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각급 기관과 학교에서는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교육을 강화하는 등 공직자각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학업중단 위기학생 조기 발굴 '총력'

도교육청, 학업중단에방 우선지원학교 고교 10곳 선정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학업중단 위기 학생의 조기 발굴을 위해 총력을 내었다.

1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업중단이 높은 도내 고등학교 10곳을 2023년 학업중단에방 우선지원학교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2022학년도 기준 학업중단이 높은 고등학교 중 희망하는 학교의 신청을 받아 공립 5곳, 사립 5곳 등 모두 10곳을 뽑는다.

선정된 학교에는 500만원의 예산을 지원 학업중단 학생수와 원인을 참고해 계획을 수립하고,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특색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된다.

또한 상담, 예술치료, 또래관계, 사제

동행 부모관계, 봉사 등의 활동뿐만 아니라 스포츠 문화예술 체험활동, 진로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연계·접목한 교육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학업중단 속려해 운영을 위한 학교내 프로그램 운영을 권장하고 있다.

정성환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교부적응 학생 및 위기학생 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학업중단 예방에 적극 나서고자 한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수의대, 본과 신입생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개최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학장 박상열)이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본과 신입생을 갖고, 본격적인 수의학문의 세계에 진입한 학생들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교수들이 예비 수의사들에게 직접 화이트 가운을 입혀주며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의대만의 전통으로, 매년 개최되다 코로나19로 잠시 중단됐었다.

최근 열린 연합 모교자에서 이뤄진 본과 신입식에는 수의과과생과 수의학과생 223명과, 수의예과 정규과정을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이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본과 신입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의학문의 세계에 진입한 학생들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수한 49명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 박상열 수의과대학장을 포함 12명의 교수들은 본과에 진입한 49명의 학생 한명 한명에 화이트 가운을 입혀주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장은성기자



우석대 호텔외식조리학과 신입생 유니폼 착복식

우석대학교 호텔외식조리학과는 11일 대학 본관 5층 시청각실에서 2023학년도 신입생 유니폼 착복식 및 제1회 스타셰프 배지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남천현 총장과 이보순 식품과학대학장 박기홍 호텔외식조리학과장, 학과 교수진 및 재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신입생 30명을 대표해 이정훈 학생이 학과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충실히 수행하고, 학과와 대학 발전에 기여할 것을 선언했다.

이어 남천현 총장은 스타셰프로서 선정한 윤태영(4년) 학생 7명의 유니폼에 손수 배지를 달아주며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남 총장은 "지금부터 시작하면 무엇든지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과 차별화된 내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며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길을 적극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박기홍 학과장은 "이번 행사를 전공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을 고취하고자 학과의 연중행사로서 발전시킬 계획"이라며 "미래 외식산업을 이끌어 갈 준비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과 교수님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